

국제유가 급등하면 “한국 위기”

국제금융센터, 생산 차질로 단기 급등 ... 물가 상승에 GDP 하락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경제의 성장 및 물가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월17일 국제금융센터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Dubai)유 현물가격은 2011년 10월4일 배럴당 96.76달러에서 2012년 1월13일 109.84달러로 13.5%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WTI(서부텍사스 경질유) 선물가격은 75.51달러에서 98.70달러로 30.7%, 런던석유거래소(ICE)의 브렌트(Brent)유는 101.17달러에서 110.14달러로 8.9% 상승했다.

이란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의 정정불안으로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5위의 원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이란은 핵 개발 의혹을 두고 서방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이라크,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등도 정치적·종교적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제2의 중동·북아프리카(MENA)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와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면 국제유가가 Brent유 기준으로 160-21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도 “주요 원유 생산국들의 정정불안 지속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제유가가 단기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도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근영 성균관대 교수는 <유가충격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유가가 1% 상승하면 약 6분기 동안 소비자물가가 0.104% 오르고, GDP는 0.042%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011년 10월 <유가변동의 비선형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유가가 1% 높아지면 소비자물가는 즉각 상승압박을 받아 8분기 후부터 10분기 후까지 0.1% 오르고 GDP는 5분기 후 0.04% 가량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제금융센터 김권식 연구위원은 <국제유가 충격이 경기불황을 심화시키는가> 보고서에서 “1980년 이후 10번의 불황기 가운데 적어도 6번은 국제유가 충격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유가 충격은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경기를 더욱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국제유가가 2011년 상반기 수준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 2012년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설 수 있다”며 “고유가는 석유제품을 비롯한 소비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유가급등과 오일쇼크를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수급로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17>